



광남일보



“광주 주먹밥, 45년 만에 청년 결으로”
광주 남구 ‘청년 따순 주먹밥’ 1호점 개소

6



LH, 주거복지포인트 시즌2 ‘박차’
동구·동부신협과 협약...작은도서관 활성화

7



정남진 장흥 물축제, 태국과 손잡고 ‘세계화’
축제교류단 등 송크란축제 참석...교류행사 개최

9



무안, 스포츠 중심도시 도약 본격화
대회·전지훈련 유치...작년 4만여명 방문

10

조간 제782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윤력 3월 20일)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16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wiz 경기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공무원들이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및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장성서 체전 즐기며 추억 만들어요”

김한중 장성군수, 시구...‘전남체전’ 등 성공 기원

김한중 장성군수가 16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wiz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이번 시구는 올해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장성군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전남체전’과 30일 개막 예정인 ‘전남장애인체전’을 알리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5월 10~11일 이틀간 황룡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를 홍보의 장을 펼쳤다.

▶관련기사 12면

시구 장면은 스포츠채널인 ‘KBSN SPORTS’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 됐으며, 시구를 마친 김한중 군수는 경기장을 찾은 공무원, 지역민들과 함께 경기를 관

람하며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 중 관중석에서 양대 체전과 축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남체전은 18~21일 골프와 볼링, 검도, 복싱, 육상, 수영 등 23개 종목에 7136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개막식은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김연자, 정동원, god의 호우(손호영·김태우), 린, 김태연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전남장애인체전은 오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3일간 당구, 배드민턴, 승마, 게이트볼 등 21개 종목에 2812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치게 된다.

장성=이형민 기자 lhb6699@gwangnam.co.kr

■ 이재명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

첨단산업·시로 경제성장 해법 찾는다

2030년까지 ‘3·4·5 성장전략’ 제시...중도층 공략

허민·문인·정한중·김성진 등 지역 인사 대거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선공약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과 통합’에 광주·전남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가 집단 ‘성장과 통합’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이연주·전현희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300여명의 창립 회원이 참석했으며, 34개 분과 조직 참여 명단도 공개했다.

먼저 유종일 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 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공직 경력과 현지 기초단체장 경력을 인정받아 분과위원장으로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성장과 통합’이 이 후보 캠프의 외부 조직 성격으로 출범해 공직 선거법상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 결과에 따라 참여했으며, 향후 정식 대선 캠프 조직으로 본격 가동되면 분과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 인사 중에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개혁분과 위원장으로,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자리노동분과 공동위원장으로,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산업자원에너



허민



문인



정한중



임서정

지분과 부위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AI분과 부위원장, 최환주 전 전남대 로스쿨원장이 정부혁신 공동부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또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 총장은 해양수산 부위원장으로,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균형발전분과 공동부위원장, 홍선기 목포대 교수는 지속가능분과 공동부위원장, 이윤호 순천대 명예교수는 기후위기대응분과 수석공동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성장과 통합’은 12·3 내란 사태와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촉발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제2 경제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달성할



김성진



박성현

수 있는 실용적 해법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탐구’ 집단이다.

성장 전략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두 34개에 이르는 분과 단위로 조직을 나눠 다양한 정책 논의와 제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창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현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현재는 한 대통령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임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사실상 확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의 열어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정부가 ‘정원 복귀’ 시 약속했던 3058명으로 내부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월호 11주기 “광주 시민들이 기억해요” ▶관련기사 3면

광주 살아가? 이 앱 It#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It#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